

## 주요 내용

### ■ 일본의 아시아 경제협력정책의 시사점 ■

#### 일본의 주요 정책 기초

- (엔의 국제화) 엔화 표시 국채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, 엔의 기축통화화를 위한 주변 국가의 동의를 적극 구하고 있음
- (아시아 경제통합) 최근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아시아, 특히 한일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(FTA) 등 동북아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함

#### 전망

- (아시아 경제 통합) 미국의 견제와 주변 국가의 정서적 저항, 일본 금융·자본 시장의 불안정 등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진전될 것임. 특히 한일 및 한중일 FTA과 투자협정 등 동북아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임
- (엔의 국제화) 일본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고,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ASEAN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임

#### 시사점

- 한일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, 한일 FTA 보다는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한중일 FTA를 추진토록 하여야 함
- 엔화 국제화의 진전에 대비하여 보유 외환 구성에서의 엔화 비중 확대와 기업의 거래 통화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축소가 바람직함

## 일본의 아시아 경제협력정책의 시사점

김 용 복

### 일본의 주요 정책 기조

- 일본은 최근 아시아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
  - 일본은 작년 10월, 아시아 금융위기 관련 국가에 30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‘미야자와 플랜’을 통해 구체적인 아시아 경제협력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함
  - 최근에는 엔화의 국제화 노력을 가속화하고,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
  - 엔화의 국제화는 금융 및 통화 분야에서,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추진은 실물 분야에서 아시아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

정 책	주 요 내 용
미야자와 플랜	아시아 금융위기 관련 5개국에 300억 달러 지원
엔화의 국제화	금융 및 통화 분야에서 아시아 경제협력 지원, 엔화 및 엔화 자산의 아시아 유통 확대, 엔화의 아시아 지역 기축통화 지향
아시아 경제협력체	실물 분야에서 아시아 경제 협력 지원, 역내 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

- ‘엔화의 국제화’ 노력 가속화
  - 유로화 출범 이후 엔화 국제화 노력이 가속화됨. 일본은 현 국면(유로화 약세의 지속, 아시아 경제의 회복 징후)을 엔화 국제화의 호기로 판단하고 있음
  - 4월부터 엔의 국제화를 위해 단기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원천징세제도를 폐지. 엔화표시 국채발행의 활성화를 통해 엔화 자산의 유통 확대 도모
  - 4월 16일 일본 대장성의 외국환심의회는 아시아 각국의 외환 위기 탈피 수단으로 엔, 달러, 유로 등 복수 통화에 연동되는 ‘통화 바스켓 제도’의 구축을 통해 엔화를 아시아의 基軸通貨로 삼는 방안 발표
  - 4월 30일 日-ASEAN 재무장관 회담에서 아시아 금융 위기 재발 방지 및 안정성

---

제고, 아시아 경제 발전의 여건 조성을 위해 ‘엔의 국제화’ 추진 필요성 강조

- **아시아 경제협력체 추진**

- 일본은 지금까지 EU, NAFTA 등 지역 경제 통합에 대해 역외 국가들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함
- 그러나 금년 5월 21일 발표된 通商白書에서는 지역 경제 통합이 다자간 무역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함
- 일본은 최근 한국과 금년 여름에 FTA와 관련해 차관 회의를 갖기로 함

**배경 및 목적**

- **‘일본 책임론’에 대한 대응**

- 아시아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달러화화의 지나친 의존, 국제 금융 자본의 빈번한 이동에 대한 아시아 내부의 대응력 부족, 아시아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일본 시장의 역할 부족 등이 거론됨
- 아시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 부문 및 실물 부문 모두에서 일본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‘일본 책임론’이 대두됨

- **아시아 및 세계 경제에서의 일본의 영향력 증대 도모**

- 최근 아시아 경제에 대한 IMF 및 미국, 중국의 영향력이 부상하고 있는 데 대해 위기 의식을 느낌
- 엔화의 국제화를 통해 일본 중심의 아시아 경제 통합과 함께 엔화의 변동성 완화, 동경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등의 효과를 얻으려 함
- 아시아경제통합체를 통해 아시아 역내 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와 일본 제품 시장의 확대, 국제적 다자간 협상에서의 영향력 제고를 도모함

**전망**

- 엔화 국제화 및 아시아 경제통합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

- 
- 일본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미국, 중국의 견제와 아시아 국가의 정서적 저항, 세계 외환시장에서의 엔화의 비중 미약(5% 미만), 일본의 금융·자본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일본이 지향하는 아시아 경제협력방안 실현은 아직 멀다고 할 수 있음
  - 그러나 일본의 자세가 적극적이고, 금융 위기를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역할 증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점진적으로는 진행될 것임
  - 일본은 엔의 국제화는 일본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ASEAN을 중심으로, 아시아 경제통합체는 논의가 진행 중인 한일 FTA나 한중일 FTA 및 투자협정 등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

## 시사점

- **한일투자협정 및 FTA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**
  - 한일 및 한중일 FTA와 한일투자협정과 관련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므로 이들 협정의 득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 방안을 도출하도록 해야 할 것임
  - 한일투자협정은 일본 자본의 유치 및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함
  - 자유무역협정은 국제수지 적자 확대, 관련 산업의 도태가 우려되는 한일간 보다는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적 성격이 강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바람직함
- **거래 통화의 다변화 필요성 증대**
  - 우리 금융기관의 외화 부채 구성 중 달러화 비중이 90% 이상이고, 지역별 수출 구성에 비해 달러 의존도가 높은 것을 감안할 때, 한은의 외환보유고 구성 및 기업의 거래 통화의 다변화가 요망됨
- **일본 경제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대처**
  - 일본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금 지원, 엔화의 국제화 진전, 아시아 경제협력의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
  - 한국은 첨단 및 지식산업 등의 성장 기반 잠식에 대비해야 할 것임

(ybkim@hri.co.kr ☎ 724-4032)